

전 남

# 감자·고구마 소득 쌀 2배

## 건강·다이어트 식품 인기 고소득 작목 자리

### 전남지역 연간 250억·507억원 농가소득

몸에 좋은 감자와 고구마가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남도는 7일 “건강·다이어트 식품으로 수요가 많아지면서 감자와 고구마가 쌀보다 ha당 2.1배 높은 소득을 내는 등 농가의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은 고구마 전국 제1의 생산지로 3981ha에서 7만4684톤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21%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농가 소득은 507억원으로 추정된다.

고구마는 노폐물을 흡착 배출하는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 좋고 다량의 비타민이 함유돼 있어 노화방지·성인병 예방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육류·생선 등과 함께 먹으면 영양의 균형 유지에 좋고 소화가 잘 되며 열량 또한 적어 비만 예방이나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감자는 전남도의 농가 조직화 및 규모화와 우량 씨감자 공급 노력으로

생산이 안정화되면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해남·장흥·보성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 도내 2682ha에서 생산, 250억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전남도 전종화 친환경농업과장은 “감자와 고구마는 건강·다이어트 식품으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다”며 “친환경 재배를 실천토록 해 안전한 먹을거리로 제공,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식량 자급률 향상으로 더욱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즐거워 조개캐기 담양군 드림 스타트센터 아동들이 지난 6일 고창군 만돌 갯벌에서 조개를 캐며 즐거워 하고 있다. 이번 갯벌체험은 평소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어려웠던 아동들에게 부모·자녀간의 관계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담양군 제공>

# 사료작물 풍작...올 80만t 수확

## 작년보다 25만t 증가...축산농가 사료 부담 완화

전남도는 7일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를 재배, 지난해보다 25만t 증가한 80여만t을 최근 수확했다고 밝혔다. 조사료 풍작으로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그동안 사료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수확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예산 332억원을 조기 지원했다.

또 지난해 8월 농림수산식품부와 조사료 생산협력 업무협약 체결하고 이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조사료 생산·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도는 오는 2015년까지 9만ha에 사료작물을 재배해 조사료 180만t을 생산, 정부의 전국 지원 재배면적의 50%를 차지하는 조사료 생산기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료 생산유통경영체 1000개소, 30ha이상 재배단지 240개소, 조사료 유통센터 4개소, 조사료 생산특구 20개소 조성 등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안병선 축산정책과장은 “기후변화와 유가 인상에 따른 불안정한 국제곡물가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공급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등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보성 읍포 해수욕장 내달 6일 개장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행사

보성 읍포 솔밭해변과 해수욕장(사진)이 오는 7월 6일 개장해 8월 20일까지 46일간 본격적으로 피서객들을 맞는다.

읍포 솔밭해변은 폭 60m·길이 1.2km에 이르는 은빛 모래밭과 50~60년 생의 소나무들이 숲을 이뤄 운치를 더해준다. 또 보성군이 경영하는 해수욕장은 지하 120m의 해수를 사용하며, 천혜의 해안경관을 보면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종합 워터파크이다.

해수욕장은 성인용 풀과 어린이용 풀, 과도풀, 유수풀로 구분돼 안전하게 놀놀이를 즐길 수 있다.

올해에는 기존 시설들을 정비하고 풀장에 아쿠아 플레이 시설을 새롭게 설치했다. 해수욕장 옆에 자리한



읍포 해수욕장터는 지하 120m의 암반해수를 사용해 아토피 피부염의 예방·치료, 혈액순환, 체내독소 배출효과, 원기회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

기간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와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해변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 11~15일 여수서 세계 불교대회 지구촌 10만명 종파초월 대화합

세계 불교도우의회(The World Fellowship Buddhists) 한국대회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 여수에서 열린다. 세계불교도우의회는 전 세계 불교가 종파를 초월해 국제 사회에 불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1950년 5월 만들어졌다.

이번 대회는 ‘21세기 불교 생태환경 사상과 수행’을 주제로 전 세계 불교지도자 1000명과 불자 10만여 명이 모여 화합과 우의를 다짐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11일 세계가 직면한 환경문제에 대해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환경포럼’을 시작으로 12일 오후 4시 30분 40개국에서 온 불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국체육관에서 개회식을 갖는다. 이날 식전 행사로 전국 10개 지역 불교연합 합창단 1000여 명이 55인조 오케스트라

와 함께하는 대화합제가 식후 행사로 마련된 등(燈) 축제에는 참가국의 전통 등과 이번 대회를 상징하는 등이 전시 된다.

이어 13일 오후 7시 디오션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전통의 법패와 현대의 오케스트라가 만나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내는 ‘소리수행 법패 콘서트’가 열리며, 14일 오후 7시 30분 흥국체육관에서 뮤지컬 연출가 김용일과 모여 화합과 우의를 다짐 예정이다.

이 밖에 14일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세계 불자 기업들이 모여 ‘불교 영화’, ‘대만 불교단체 경영의 성공요인’, ‘툰미니프로 개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im@

#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보급률 2014년까지 50%로 늘린다

순천시 주택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재 28% 수준에서 오는 2014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7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폐회한 제 166회 임시회에서 허유인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개정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내년부터 2년간 매년 24억원이 집중적으로 투입, 지원될 예정이다.

이 금액은 3000여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로 인해 현재 28%인 순천시 주택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오는 2014년까지 50% 정도로 올라갈 예

정이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100m당 10세대 미만, 또는 단 1세대라도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하면 전남 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해 추진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세대당 지원 금액이 공사 금액에 따라 40~68만원이었던 것을, 개정된 조례안은 금액을 올려 일반 세대의 경우 70만원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20만원까지 차등화, 고정화시켜 전체적으로 지원 금액을 올리면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더 혜택을 받게 됐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yjj@

# 담양딸기 신제품 나왔다

## 7년 연구...‘담향’ ‘죽향’ 보호출원 마쳐

담양군이 자체 개발한 신제품 딸기 명칭이 ‘담향(潭香)’과 ‘죽향(竹香)’으로 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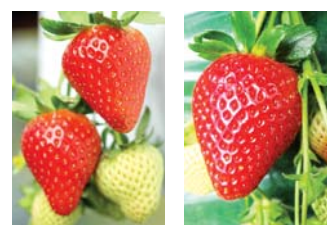
담양군은 지난 2006년부터 7년 동안 딸기 신제품 육성사업을 추진, 지난달 25일 신제품 담양 1호인 ‘담향’과 담양 2호인 ‘죽향’에 대해 국립 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을 마쳤다.

이에 따라 순수한 담양 품종으로 로열티 지불에 따른 농가 부담을 크게 해소할 수 있는 등 수출에 따른 외화획득이 가능하게 됐다.

군은 온 국민이 친근감 있게 부르고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제품 딸기 명칭을 공모했다.

군은 공모를 통해 접수된 351건에 대한 심사 등을 거쳐 담양 딸기와 대나무의 고장 담양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주는 이름인 ‘담향’과 ‘죽향’을 선정했다.

두 품종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3년에 걸친 농가실증 결과 당도가 높고 수확기에 과실이 무르지 않아 수출에 유리하다는



담향 죽향

평가를 받았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이철규 박사는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연구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권 등으로 보급해 국제적인 권리를 인정받겠다”며 “농촌진흥청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제품의 대량증식과 안정 생산기술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딸기는 국내 최초로 ‘지리적표시’ (제70호) 등록과 국제 표준규격 ISO 9001(품질경영)과 ISO14001(환경경영) 동시 인증을 받았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서·남해안 지하해수 조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운)는 전남 서·남해안의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지하해수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해안가 육상 해수양식(종묘)장에 수온과 수질이 일정한 지하 해수 개발가능성을 조사해 양식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남 10개 지구 등 전국 50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조사를 시작, 지난해까지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18개 지구 조사를 완료했

다.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대상목표인 전국 7개 지구 가운데 고흡군 고도 2지구와 완도군 완고 1지구를 신규 조사할 계획이다.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하 해수를 이용할 경우 동절기 수온 15도의 지하 해수를 1일 100t 사용시 연 1억원 정도의 난방비를 절감하는 등 유류와 전기사용량 절감으로 양식장 경영여건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남원에서 만나는

# 지리산 둘레길

마을과 고개를 넘어 사람과 숲을 이어주는 지리산 800리길 시작과 끝은 남원입니다

## 지리산둘레길은

KBS1박2일이 함께 했던 남원구간으로 맛과 맛이 숨쉬는 가족 여행지입니다.



남원 여행의 모든것! 남원1박2일 앱 다운로드

